

[10 월 첫째주 가정예배]

**정직하고 성실하게**

[찬송] 376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디모데후서 4 장 5 절 말씀

[말씀]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란트, 즉 직분과 재능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정의로게 살고 충성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직분과 재능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천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따라 다 알맞게 천직을 주셨으므로 그 천직에 충성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직의 종류와 재능의 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비록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작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의 분수를 넘어 탐욕을 갖게 되면 종국적으로 크나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렇므로 천직을 받은 우리는 착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직분과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다는데 귀착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자꾸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열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받았으면 네 달란트로,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두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 장 29 절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천직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알고 열심을 다해 착하고 충성되게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은 결코 한 가지 직분만으로 평생을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직을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천직을 알아내고 천직에 충성할 때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대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일에도 충실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나는 포도나무요 (자녀이름)는 가지라 (자녀이름)가 내 안에, 내가 (자녀이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자녀이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이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이름)의 인생에 복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10 월 둘째주 가정예배]

**겸손한 자의 은혜**

[찬송] 426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야고보서 4 장 6 절

[말씀]

요즘 들어 기독교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생활속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경건과 섬김과 희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여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늘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엔 완악한 풍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하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속화되어 교만하게 산다면 이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 장 5 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 종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요 반역자인 인간을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10 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린도후서 8 장 9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할 때 하늘나라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빛나간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겸손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에도 은총을 내려 주시고 밝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나는 포도나무요 (자녀이름)는 가지라 (자녀이름)가 내 안에, 내가 (자녀이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자녀이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이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이름)의 인생에 복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10월 셋째주 가정예배]

**진리를 발견한 기쁨**

[찬송] 506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 장 9 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맛보는 기쁨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으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에게는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생활은 일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 장 6 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청산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우리 속에는 주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위된다는데 두게 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기쁨은 돈으로도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속에는 천국을 얻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억압과 부조리와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함이 없고 앓거나 죽는 것이 없는 질서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을 얻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마음 속에 충만하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절대적인 영육 간의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회에서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로 인한 불안과 절망으로 고조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기쁨,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기쁨, 천국을 얻는 기쁨이 충만하므로 마음의 참 평안과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표적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의 근원을 포착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수고와 역경 가운데 서도 마음 속에 잔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의 변천이나 세월의 흐름이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하늘나라 아닌 곳에서 찾으려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이웃에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나는 포도나무요 (자녀이름)는 가지라 (자녀이름)가 내 안에, 내가 (자녀이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자녀이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이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이름)의 인생에 복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10 월 넷째주 가정예배]

**두려움 없는 사랑**

[찬송] 470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요한일서 4 장 18 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을 때 그곳에는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밝음만이 있었습니다. 밝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므로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을 반역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력을 알 때 생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큰 소리와 높은 데서 떨어질 때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성이 발달되고 지식을 얻게 됨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음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일에 부딪칠 때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육에게 다가간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불안, 공포를 넣어주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일 때 두려움을 이길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쫓는 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며 두려움의 그림자는 쫓겨나고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즉시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두려움을 쫓으려면 소망속에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승리하 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불안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나는 포도나무요 (자녀이름)는 가지라 (자녀이름)가 내 안에, 내가 (자녀이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자녀이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이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이름)의 인생에 복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10월 다섯째주 가정예배]

**순종할 때 축복이**

[찬송] 28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창세기 35 장 3 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당시에 세겔에 8년을 머물러 있었으며 또 그가 베엘에서 행한 서원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겔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주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그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베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회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이방신상을 버리고, 둘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며, 셋째로 의복을 바꿀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베엘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베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을 새롭게 함과 더불어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옛 사랑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낙망 되는 일을 만날 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사건이나 체험을 되찾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결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 사면 고을 사람들의 원한을 불러 일으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추적을 막아 주시고 야곱 족속이 축복의 땅에 편히 돌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새롭게 되새겨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이름을 다시 갱신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약속들을 그의 전능하신 팔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5 장 11 절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을 들어 세우시고 축복하시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야곱을 높여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건히 섬기는 것을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는 가족이 되십시오.

[기도: 설교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성령에 충만하며 능력 있는 증인,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나는 포도나무요 (자녀이름)는 가지라 (자녀이름)가 내 안에, 내가 (자녀이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자녀이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이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이름)의 인생에 복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가정예배 자료